

곡성 디지털 취약계층 디지털 체험 '인공지능 문해력' 확산

국립광주과학관 '실버세대 찾아가는 AI 과학관' 성료 내 손안의 비서·인공지능 오락 게임 대결 등 체험 성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최근 인구 소멸지역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과 '2026 실버세대 찾아가는 AI 과학관'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전 국민 AI 문해력 확산을 위해 이뤄진 이번 사업은 지난 14일과 21일에 걸쳐 두 차례 시범 운영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AI에 대한 이해와 체험 기회를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프로그램이 진행된 전남 곡성군은 인구 2만7000여명이 거주하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40%를 웃돌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곳으로 손꼽힌다.

곡성군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AI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공지능 접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AI 기술과 스마트 기기를 쉽게 이해하고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이다.

이 가운데 스마트 폰을 활용한 '내 손안의 비서' 체험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건강관리 정보 확인 등 실생활과 연결된 활동을 직접 체험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로봇과 오락 게임 대결, 로봇댄스 공연, 이동과학차량 전시물 체험, 천체망원경을 활용한 태양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열린 참여 속에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인공지능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체험해 보니 재미있고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인구 소멸지역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근 전남 곡성군과 '2026 실버세대 찾아가는 AI 과학관'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문기현 연구원은 "이번 찾아가는 인공지능(AI) 과학관 운영을 통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행사가 과기정통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사업과 연계돼 지역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호남권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호남권 전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확

대, 수준별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며 계층과 연령을 불문한 '전 국민의 인공지능(AI) 한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학습 체계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광남일보는 24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지역 뉴스가 경쟁력...주제별 심층 기사 작성을”

광남일보 임직원 교육, 신문윤리강령 준수 주문

이승배 사장 “독자 의견 적극 반영...권리 보장”

광남일보(회장 양진석)는 24일 광주 북구 중흥동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신문윤리강령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실무교육에는 전남 시·군 담당 기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승배 사장, 편집인이 편집윤리강령, 광고윤리강령, 판매윤리강령, 지역 특집기사 제작 논의 순

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사장은 편집윤리강령에서 취재기자는 취재원 보호를 비롯해 공정보도 준수, 옹호 단정을 당부했다.

특히 사람의 첫인상은 단 몇 초만에 정해져 오래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 했다.

디지털 전환이란 변화 속에서도 지역 언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특성화 사업, 축제 등 지역별 맞춤 기사와 독자와의 직접 연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사장은 맞춤형 전략 강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을 주도할 것을 주문 했다.

광고윤리강령에서는 광고 수수 시 준수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광고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규정된 광고 단가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판매윤리강령에서는 정기구독자 유지에 대해 안내했다.

이 사장은 정기구독자 관리를 위해서는 구독 요청 시 금품 제공 금지와 무가지 배포 기간(2개월 이내), 구독료 원칙 준수, 무단 투입 금지 등을 주문했다.

이승배 사장은 “지역 소멸, 농업 분야, 다문화가정 정책 등 심층적인 기사가 필요하다”며 “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도,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전략 구체화

22개 시군·경찰·소방 등 250여명 참여 사전예방·조기발견 중심 협력체계 논의

전남도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살예방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24일 전력거래소 다솔홀에서 '2026 전남도 생명존중·자살예방 포럼'을 열고 전남지역 자살 현황을 분석한 뒤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와 전남도,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 경찰·소방, 정신건강 전문의, 서민금융·사회돌봄·청소년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정책 공유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행사는 기초발표,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국가 자살예방 전략과 정책 방향 △전남 자살 현황 분석 △아동·청소년,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 실태와 개입 전략 △지역사회 기반 예방체계 구축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전남도는 24일 전력거래소 다솔홀에서 '2026 전남도 생명존중·자살예방 포럼'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자살예방의 핵심이 위기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지역 여건과 고위험군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이 강조했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자살 예방은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역사회 공동 과제”라며 “현장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

혔다.

전남도는 앞으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과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예방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은행 배드민턴 선수단은 최근 광주시에장애인체육회관에서 장애인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재능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 지역 스포츠 발전 힘 보탠다

장애인체육회관에서 장애인·유소년 대상 재능기부

광주은행 배드민턴 선수단이 장애인 선수들과 유소년 꿈나무들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스포츠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 선수단은 최근 광주시에장애인체육회관에서 장애인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재능기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은행 배드민턴 선수단과 장애인스포츠클럽 소속 선수 등 약 30명이 함께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본기 지도와 실전 기술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주은행 선수단은 현장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세심한 코칭을 이어갔고 참가 선수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며 실력 향상의 기회를 얻었다.

이번 재능기부 활동은 2024년부터 매년 1~2회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행사로 지역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와 배드민턴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송하경 기자 hajong2@gwangnam.co.kr



한국생활개선신안군연합회는 지난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총회와 슬로시티 특강을 진행했다.

생활개선신안연합회, ‘슬로시티 실천’ 박차

연시총회·슬로시티 특강 진행 등 실천 의지 다져

한국생활개선신안군연합회가 슬로시티 가치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신안군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신안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연시총회와 슬로시티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총회는 연합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슬로시티 가치 확산과 탄소중립 실천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회원들의 적극 참여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 슬로시티 시민강사로 활동 중인 신안군연합회장이 직접 진행한 교육에서는 슬로시티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 운동임을 강조, ‘슬로시티 운동 10가지

생활수칙’을 중심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호응 얻었다.

부대행사로는 슬로시티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업사이클링 작품과 친환경 화분 등 다양한 성과물을 전시해 눈길을 끌었다.

7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신안군연합회는 전·현직 회장이 함께 제창과 합동공연을 펼치며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장을 통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과 시했다.

김숙현 신안군 농촌진흥과정은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